

조세감면법 연내 처리 무산... 光銀 매각 차질 우려

강기정·이용섭 “내년 2월 재논의 잠정 합의”

지역환원 새 변수... 내일 우선 협상대상 선정

우리는행으로부터 분리매각에 따른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매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의 경우 지역환원이 어려워진데다가 본입찰가가 예상보

다 터무니없이 낮아 험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매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강기정·이용섭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향토은행화를 바라는 지역민들과 지역

정권과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은행을 우리은행에서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74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전제로 두 은행의 매각을 추진, 지난 23일 두 은행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연내 조세감면법안 개정이

무산돼 두 은행의 매각 차질이 우려되면서 일각에서는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에 대한 새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 의원은 특히 “공직자금위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주요한 점을 뒤 평가하고 지방은행이 지역민과 소통·발전하도록 다양한 추가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아냈다”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연기는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합심해 광주은행이 지역민 품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자금관리위원회는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31일로 하루 연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역대 부농 늘었다

4065농가... 1천농가당 25명꼴 고흥 최대

내년까지 1만명 육성 목표, 맞춤형 지원

전남지역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부농이 4065 농가로 지난해 3400 농가에 비해 665 농가(19.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남도는 “역대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소득의 요인으로 35%가 친환경 농산물 사육을, 31%는 농업 규모화를, 16%는 관로안정 등을 들었다”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규모화, 차별화, 품목별 조직화한 것이 고소득의 비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부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이 1384 농가(34%)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 1320 농가(32.5%), 채소 628 농가(15.4%) 순이었다.

올해는 특히 국내 축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대 부농이 크게 줄지 않은 점은 고무적이었다. 전남도는 친환경 축산 정책인 동물복지형 축산이 조금씩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득 규모는 1억~2억원이 3401 농가(83.7%)로 10 농가 중

8 농가 이상이며 2억~10억원이 631 농가(15.5%), 10억원 이상 대농(大農)은 33 농가였다.

지역별로 고흥이 491 농가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 고소득 시군에 이름을 올렸으며 영암 387 농가, 강진 356 농가, 보성 329 농가, 해남 323 농가 순이다.

5000만~1억원 미만 농가도 2011년 6107 농가에서 지난해 7632 농가, 올해 8801 농가로 20% 안팎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까지 고소득 농업인 1만명 육성을 목표로 농가별 맞춤형 지원, 경영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9일 “역대 부농은 매출액이 아닌 순소득 개념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통계다”면서 “역대 부농의 성공 사례는 농업인 교육에도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내 총 농가수(16만 4000농가) 중 역대 부농은 0.025%에 불과해 1000 농가당 25명 꼴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겨울가뭄... 전남 섬지역 식수 비상

고흥 거금도 급수중단·완도 제한급수

겨울 가뭄으로 거금도 등 전남지역 일부 섬지역 식수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9일 전남도는 “고흥 거금도 오전 수위까지 완전히 말라 35개 마을 2476가구(4752명)에 지난 19일부터 급수가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저수용량 70만인 이 수원의 현재 수위는 7%로 물을 더 이상 뽑아 올 수 없는 상태다.

거금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일 급수에 5일 단수’ 등 제한급수를 해왔다. 명전, 오전, 우두마을 등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7개 마을은 기존 지하수 관정을 다시 활

용하거나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소방차를 이용한 비상급수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생수 5000병 지원, 마을별 소독약품 배부 등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또 완도 금일읍(적지도)을 비롯해 남도, 청산도, 보길도 등 4개 읍면지역도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이들 수원지 저수율은 9.5%(남도)에서 29.2%(보길도)에 불과하다.

급수 가능일수도 금일읍 105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51일(보길도)에서 82일(남도) 수준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작품 훼손 1억원 배상 판결

독일 갤러리 “작품 파손됐다” 소송 제기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지난 2010년 제8회 비엔날레에 전시하기 위해 외국 갤러리에서 빌려온 작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훼손, 역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돼 망신을 샀다.

〈관련기사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배형원)는 독일 갤러린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낸 135만 달러(약 1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단이 갤러리에 9만4500달러(약 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 29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010년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에서 미국 작가인 고(故) 제임스 리 바이어스(James Lee Byars)의 작품 3점을 빌려와 비엔날레 기간 전시했다가 작품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의 실수로 작품 일부를 파손시켰다.

독일 갤러리 측은 전문감정을 실시한 뒤 “작품이 전 손파손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지난 2012년 작품 1점당 45만 달러(4억7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작품을 들어올리는 과

정에서 모서리 부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부서진 것으로 광주비엔날레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석조 작품은 쉽게 손상될 수 있어 고가의 미술품을 다루는 재단은 한층 더 주의할 의무가 있고, 사전에 작품 특성을 파악해 손상을 막을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갤러리와 재단 양측의 책임이 있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며 “1심 결과를 놓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작품손상과 철거 계약을 맺은 A업체의 관리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검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영암 철새도래지 저병원성 AI 검출

도, 전남남 구성 방역 총력전

전남도는 29일 “국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되는 등 확산 우려가 있어 AI 전담반을 꾸리고 종합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결과 올 하반기 야생조류의 배설물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389건이 검출됐다. 조사시료 2900건 가운데 무려 13.4%에 달했다. 이 지역에서도 지난달 21일 영암군 신북면의 한 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저병원성인 H4형 AI바이러스가 나왔다.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 및 관련

기관, 생산자 단체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내년 5월까지 닭과 오리 사육농가가 많은 나주, 영암, 해남, 함평군 등 현장 중심으로 매일 AI 차단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닭·오리 농장에 대한 담당 공무원 지정, 철새 도래지 10곳에 야생조류 차단방역 등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최근 10년새 4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 국내에서 2476만여마리의 닭과 오리 사육농가가 피해를 보며 2008년과 2011년 영암과 나주 일대에서 닭과 오리 400여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추천합니다”

관람객 78% 만족·전시내용 유익 76%

지난 10월 개관한 국립광주과학관 관람객 10명 중 8명이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고 답하는 등 만족감을 나타냈다.

29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과학관을 찾은 관람객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험형 전시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선 78%(416명)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전시 내용은 76%(402명)가 ‘유익했다’고 답했다.

전시장 및 시설물의 청결 상태에 대해서는 84%(447명)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주변 사람에게 과학관 관람을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436명)가 ‘그렇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중 79%(422명)가 ‘국립광주과학관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지역에 세워진 국립과학관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도 같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26%포인트였다. 국립광주과학관 최은철 관장은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한 전 시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왕시엔민 주 광주 中총영사 취임

왕시엔민(王憲民·55)신임 주 광주 중공 총영사가 지난 27일 취임했다.



왕 총영사는 대학 졸업 후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 주 유엔(UN)대표단 3등 서기관, 주 홍콩 특별행정구 특파원공서(特派員公署)2등 서기관, 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주 광저우 부총영사로 근무해 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알림

제58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58회 신문의 날을 맞아 표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부문: 제58회 신문의 날 표어
- ◇응모기간: 2014년 1월 1일(수) ~ 2014년 2월 28일(금)
- ◇출품요령: 공모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접수. 신청서는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다운로드 사용.
- ◇출품작수: 개인별 2점 이내
- ◇출품규격: 표어 20자 이내
- ◇제출 및 문의처: 한국신문협회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3층 1302호 (☎ 02-733-2251 ~ 2, 팩스 02-720-3291)
- ※응모 소재 및 시상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光州日報社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h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고시절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양양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흥암지점 | 653-4474